

## 제7차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유 지 연 \* (한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신 상 옥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제7차 고등학교 가정과학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측면의 적절성을 밝혀냄으로써 가정과학 교육과정의 가치를 판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지는 가정과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2차 설문지는 1차의 평가 내용을 추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3차에서는 2차의 응답 결과가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들이 재응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가정과학의 교과목 편제가 부적절하고, 교과목 명칭이 기존의 가정 교과와 비슷하며, 매력적이지 않고 진부하며, 「과학」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심화선택과목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가정과학의 성격이 기존의 가정 교과와 비슷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미래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나, 기술과학의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교과와 철학적 관점이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가정과학의 목표가 기술교과로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정 교과의 목표와 비슷하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실천적 비판교과의 목표로 부적절하며, 사회 개선에 이바지하기 어려우며, 교과와 철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가정과학의 교육내용이 위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며,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다른 영역보다 '가족생활' 영역의 학습 필요성이 높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내용을 학습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가정과학의 교수·학습 방법이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학습자에게 과도한 과제를 부여하게 되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여건,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연계성,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가정과교육 전문가들은 가정과학의 평가가 평가 시행에 대한 가정·학교·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학습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